

2023 년 3 월 19 일 “예수님의 비유(33)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마 22:8-14)

”

오늘 비유는 마지막 심판에서 기준이 되는 혼인잔치에서 입을 예복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1] 혼인 잔치의 의미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자리는 혼인 잔치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비유된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충만을 의미합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에 이미 초청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오라 했지만 오기를 거부했습니다(5~6 절). 종들 = 선지자들. 이에 임금은 화가 나서 도시를 불태웠습니다(7 절).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 아무나 잔치에 오라고 초청합니다(9 절).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들이 모두 와서 잔치를 채웠습니다(10 절).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복을 거부한 것입니다. 주인이 준 예복을 안 입은 것은 주인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냅니다.

[2] 예복과 뽑힌 사람

예복은 혼인잔치의 모든 경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즉, 축하와 감사와 희락과 교통과 나눔입니다. 예복을 입는 것은 주인과 혼인하는 아들을 존중하며 잔치의 질서를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는 존중과 질서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따르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위이며, 이것은 옛 삶의 자기 중심적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내포합니다.

계 19:7-8 “...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3] 혼인잔치와 유업의 땅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하여 궁극적 유업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걸었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바로 충만하고 부요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광야 1 세대는 어려움과 시험이 닥치면 늘 불평/원망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유업을 이을 새 삶을 거부한 것이며 비유에서 예복을 거부한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2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 안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여 유업을 받는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입성의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시험의 끝에는 기쁨의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주시는 예복, 즉, 사랑과 존중과 새 질서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그러면, 삶의 질고와 곤경이 여전히 내 삶에 있을지라도 자유와 평강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 삶의 질과 풍요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예복입은 유업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왜 예복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일까요?
2.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